

흑인운동의 전통을 찾아서

Booker T. Washington and W. E. B. Du Bois: A Study in Race Leadership, 1895-1915. By Hae Sung Hwang. (Seoul: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xii + 194 pp.)

裴 永 洙

〈서울대학교 西洋史學科〉

미국의 흑인사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민권운동의 대두뿐만 아니라 사회사학의 발전에도 힘입어서 커다란 활력을 얻었고, 그래서 노예제도와 흑인문화를 중심으로 중요한 업적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활력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민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도 뻗어 있으며 나아가 그 이전의 흑인운동에 대한 관심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20세기 흑인운동의 역사적 기초를 마련해준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이나 듀보이스(W. E. B. Du Bois)같은 주요운동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황혜성의 저서는 그런 경향에 속하면서도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들 두 운동가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시해왔던 그들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자신의 말을 빌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중적인 전기가 아니라 그들의 공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해명”(p. ix)이다. 부가적으로 이 책은 또한 워싱턴과 듀보이스의 관계가 흑인운동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그 상호작용이 흑백분리와 참정권 박탈이라는 형태로 인종주의가 고도화된 시대에 대처해 나가려는 흑인의 노력에 대해서 끼친 영향에 대한 해명”(p. ix)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저자는 중요한 사실들을 독자에게 일깨워 주는 동시에 여러가지 의문, 특히 부차적인 주제에 연관된 의문들을 남겨 놓고 있다.

워싱턴과 듀보이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는 먼저 그들의 배경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워싱턴은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나 완강한 인종주의 사회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교도적 윤리를 습득했고, 그래서 19세기 말에 수립되던 짐 크로우(Jim Crow)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그에 순응하면서 청교도적 윤리에 입각하여 흑인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듀보이스는 북부의 자유인 가정에서 태

어났고 하버드(Harvard) 대학을 거쳐 독일에 유학하기도 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따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학문을 통해서 인종문제를 규명함으로써 흑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저자는 그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제2장에서는 1894-1903년간에 그들이 합의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1895년 애틀랜타(Atlanta)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워싱턴은 짐 크로우 체제를 묵인하고 흑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흑인이 근검, 절약, 그리고 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기술을 배워서 경제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듀보이스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워싱턴에게 그가 운영하는 터스키기(Tuskegee) 학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협조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협조하였다는 지적은 그들의 생각을 각자가 처해 있던 상이한 위상에서 분리시켜서 지나치게 추상화시킬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1890년대 후반에 워싱턴은 사실상 미국 흑인의 대변자 위치에 있었던 반면에 듀보이스는 신진 학자로서 안정된 일자리마저 없었던 만큼 듀보이스가 워싱턴에게 협조했다기보다는 워싱턴의 지도력에 추종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듀보이스가 워싱턴과의 의견을 달리 한다는 사실이 곧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18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듀보이스는 흑인의 자아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정치를 인종문제의 중심에 놓고 투표권 보장 등 흑인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시작해서 듀보이스는 워싱턴에 대해서 점점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저자가 서술하듯이 양인의 관계는 1903-05년간에 소원해져서 그 후에는 반목상태에 들어 갔다. 따라서 워싱턴의 1895년 애틀랜타 연설에 대해서 듀보이스가 보인 반응이 과연 그의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저자의 논지에 따르면 결국 워싱턴은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한 데 반해서 듀보이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양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1890년대 중엽에 듀보이스가 보여주었다는 사상적 변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사실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고, 변화라고 하는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과 거기에 작용했을 여러 요인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었을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제3장은 1903-05년간에 양인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 과정은 1903년에 듀보이스가 워싱턴의 타협주의와 경제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가 구현한 바와 같은 정치적 저항의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시작되었

다. 곧 듀보이스는 윌리엄 트라터(William Monroe Trotter) 등 이전부터 워싱턴을 비판해 왔던 북부의 흑인 지식인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그는 워싱턴에 대립되는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의문이 떠오른다. 듀보이스가 정치적 행동주의 노선을 선언함으로써 워싱턴과의 결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던 흑인들의 지지를 얻었다면, 프레드릭 더글러스에서 시작된 이 정치적 행동주의는 저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윌리엄 트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식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는가? 워싱턴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던 다른 흑인 집단은 없었는가? 과연 워싱턴의 지도력은 흑인들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었는가? 바꾸어 말해서 대다수 흑인들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워싱턴과 듀보이스의 “공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큰 맥락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마지막 의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두한 흑인 민족주의(Black Nationalism)가 워싱턴은 물론이요 듀보이스와도 뚜렷이 구분되는 운동으로서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한 최초의 흑인운동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절실하게 대답이 요청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궁금증은 이 책의 뒷 부분을 읽으면서 더욱 증폭된다. 제4장은 듀보이스가 1905년부터 워싱턴에 대립되는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는 데서 시작해서 1915년에 워싱턴이 사망함으로써 양인의 관계가 중단되는 데서 끝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인종폭동이 빈발하는 등 흑백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순응과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워싱턴의 낙관론이 호소력을 잃어 갔다. 그 대신 듀보이스를 중심으로 인종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흑인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행동주의가 확산되었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워싱턴은 말년에 와서 정치적 행동주의로 선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20세기 초에 흑인운동의 기본 노선에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고 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저자에 따르면, “시대는 순응과 자조 이외에 다른 접근 방법을 요구했고, 워싱턴은 이것을 간파했던 것 같다. 흑인 인구는 농촌에서 도시로 또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인종 정책을 지탱해 주던 기둥 하나—남부 농촌이 흑인에게 적합한 장소라는 점—가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이다”(p. 169).

이 논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결론에서 조금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워싱턴의 사상과 정책이 19세기 말에 흑인이 거의 모두 남부 농촌에서 살고 있던 상황에서는 적합했으나, 20세기 초에 흑인들이 북부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에서는 적실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p. 172). 아마 이것은 19세기 말에 흑인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남부 농촌 주민이 정치적 행동주의로 나가지 못

할 만큼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1890년대 전반에 남부의 수많은 흑인 농민들이 인민주의라는 미국사상 최대의 제3당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인 인구는 미국이 1차대전 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소수만이 북부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을 뿐이고 거의 모두가 여전히 남부 농촌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저자는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워싱턴과 듀보이스의 “공적인 상호작용”에 관해서 독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점에서 궁금증을, 특히 그러한 상호작용이 흑인운동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이 궁금증은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과 듀보이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더 큰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해서 적어도 프레드릭 더글러스로부터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에까지 이르는 흑인운동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이 주요 운동가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기존 연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그들의 상호 관계와 그 영향에 착안하여 많은 사료와 연구 문헌을 기초로 그것을 밀도있게 검토하는 황해성의 저서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은 우리 학계의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